**Q. 42서울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42서울 들어오기 전에 다닌 코딩 학원에서 한 언니를 만났었는데, 그 언니가 추천해줬어요! 그 분도 라 피신을 했었고, 붙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요. 소개를 듣고 지원한 이유는… 학원 다닐 때는 강사님 말씀을 듣고 코드를 따라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었는데, 42서울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고, 남의 코드를 따라치기보다는 저의 코드를 능동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Q. 라 피신 4일차, 현재 상태는 어떠세요?

들어오기 전에 Java 공부를 했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못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어요. 특히 Shell과 C 중에 Shell이 더 어려워요. C는 변수 할당이나 배열처럼 Java와 비슷한 개념들이 있었는데, Shell은 전혀 다른 명령어를 사용하다보니까 너무 막막하네요.

**Q. 기존 학원과 42서울과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 커리큘럼, 방식이에요. 학원에서는 강의식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있어서, 이론 들은 후에 강사님의 코드를 따라치기만 하는데, 42서울에서는 프로젝트를 아예 백지로 시작해서 끝내야 하잖아요? 머리를 더 쓰고 고민을 많이 요하는 것 같아요. 방향도 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죽겠고요. 튜토리얼이나 프랑스 사람이 나와서 알려주는 영상을 통해 공부하고 있어요. 프랑스어로 말하는데 자막은 영어라서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모든 것을 스스로 찾아나가야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차이점이에요.”

Q. 동료학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질문을 하고 싶어도, 뭘 모르는지를 몰라서 질문을 던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을 잘 못해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 뭐야…?’란 반응이 나올까봐 무서워요. 용기를 내고 싶어도 제 옆자리에는 사람들이 잘 안 앉고요.

**Q. 42에서 제일 힘든 게 어떤 부분인가요? (=와보니 어때요?)**

“조바심나고 초조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남들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슬랙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질문 글들을 보면 ‘아니 벌써 저기까지 가있다고?’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에 반해 저는 뭘 해야 할 것 같은데, 앉아는 있는데 진도는 안 나가는 걸 보면 거의 망망대해에 빠진 것 같아요. ‘나만 뒤에 처져있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면서 나오는 불안함이 제일 힘들어요.”

Q. 피신에서 얻기를 기대하는 것?

좋은 동료들을 얻고 싶었어요. 학원에서는 옆에 사람들이 앉아있어도, 소통 없이 그저 강의를 보고 따라치는 것만 가능했거든요. 만약 학원을 나와서, 42라는 개발자들의 커뮤니티의 일부가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Q. 피신을 오면서 포기한 것은?

일단 잠이요. 피신을 시작하면서 잠을 확 줄였어요. 원래는 하루에 8시간은 잤던 것 같은데, 최근 3일 동안은 2시간 ~ 3시간 자면서 지내요.

한 가지 더는 Java 지식이요.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Java를 공부했었는데, Java 대신 C언어를 쓴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Q. 코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전공이 정보보안 관련 쪽이었는데, 보안 업무는 3교대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등 근무환경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지 않아서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게 된 거죠. 학원에서 가장 먼저 접했던 분야가 웹이고, 웹사이트에서 버튼이 생기거나 링크를 연결하는 것이 신기해서 계속 공부를 진행했죠.

Q. 어떤 스타일의 동료를 만나고 싶으세요?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Q. 4주 후에 나에게 메세지를 남긴다면?**

“붙었니…? 붙었겠지…? 포기하지 말고 꼭 붙었길 바란다...ㅎㅎ”

(아직 인상깊은 에피소드가 없다고 하셔서… 더 이상 묻지를 못했습니다 ㅠ)